주기도와 십자가(VI) - 일용할 양식
(마6:9~11)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기도와 십자가 여섯 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이 주기도문 중에서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그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 양식에 관한 서로 상반되는 아니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식이라고 하는 거 성만찬을 말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떡과 음료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말한다. 그날 그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말한다. 정신은 독서를 해야 지식을 얻어야 양식이 되는 것이고 육체는 밥을 먹어야 양식이 되고 떡을 먹어야 양식이 되는데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예수님 자신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이 그냥 일용할 양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필요는 이미 그 앞부분까지 주기도문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마음에 선점하고 있던 걸 제쳐놓고 하나님과 만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처럼 공생애 때는 당신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사셨는데 이제는 나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애 때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꼭 구원자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몸은 메시아로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행위만 나타나셨겠지만 이 몸을 입을 때는 엄마의 역할도 하실 수 있고 아빠의 역할도 하실 수 있는데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엄마의 역할도 하시고 아빠의 역할도 하시고 사업가의 역할도 하시고 선생님의 역할도 하시고 제자의 역할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굳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중복되니까. 충분히 영적인 필요가 다 요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일용할 양식을 「인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생활에 모든 필요를 지칭한다.」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루터의 생각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 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뜻을 좀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근접해서 이해를 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요,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부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와 연관된 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주기도를 이해하는 게 통념이 되어 버렸는데 과연 이 통념이 맞는 생각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해봐요.

후반부에서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을 위한 기도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주석서에서 대표적으로 이 후반부의 내용을 묘사한 것을 적어 온 거예요.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을 위한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안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해나가신다고 하는 것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일이 포

함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실제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게 관계가 없습니까? 요순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도 함포고복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통치자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경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나가실 때에 하루 동안 먹고 살아야 될 음식 문제가 그 하나님의 통치행위 바깥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따로 먹을 것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바깥에 나가서 도시락 싸갖고 먹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이후에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것을 입히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 오셔서 경영자로서 그들의 삶을 운영해나가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반부에서 이 세상에서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주기도문에서 소위 전반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반부에서 실제 생활에서 구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바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이 계속된 6장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고소하면서 주기도문의 하반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반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어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반부에 대한 이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맞다 이겁니다.

분명히 표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표현했지만 주님께서 그 뒤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으며 주기도문을 본다 그러면 하

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상반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순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이해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그 전반부에서 이어져서 나가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면서 바로 뒤에 불과 5분도 안 돼서 말씀하실 것이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문구를 오고 오는 세대동안 그것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 안에 그걸 집어 넣으셨냐 이겁니다. 여기에 아주 절묘한 주님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선언을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선언합니까? 한계를 줄을 긋는 기도예요. 한계를 설정하는 기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을 긋듯이 남한과 북한의 국경선 삼팔선으로 이루어지듯이 한계를 그어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한계를 그어내는 기도냐? 루터의 말대로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간의 물질생활에 모든 필요를 지칭하는 거라 말한다고 그러면 인간의 이 물질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 중에서 한계를 긋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그 외의 분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한계를 그어서 구분한다는 겁니다.

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선언하면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 중에서 내 입장에서 볼 때 용도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의 쓰임새에 용도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일용할 양식 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물질 주시고 저런 물질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중에서 용도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일용할 양식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나가시고 다스리시고 물질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한테

물질을 보내놓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보내놓으실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 물질 중에 내 입장에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한계 분은 내가 하루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것 밖에 없다 이거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시고 임금님이 되셔서 통치해 나가실 때에 어떤 용도로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놓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중을 읽으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공생애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을 미리 보내주셨으므로 그 돈을 주님께서 쓰실 때 어디다 쓰실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내가 용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계속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전반부 후반부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에 대해서 실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마음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일번으로 재물에 대한 나의 입장과 태도를 표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제일 큰 방해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물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재물에 대한 사랑이고 돈입니다. 돈… 돈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실지로…

앞의 부분 기도 잘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눈앞에서 내게로 들어오는 이 돈들이 다 일용할 양식을 제외해놓고는 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돈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나와 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돈에 대해서 밀치려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로봇이라고 그걸 끌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돈을 뺏어서 하나님이 여기다 써야 돼 저기다 써야 돼 그러시겠습니까?

제일 큰 방해가 제일 강한 방해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후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죄

를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린 내일 할 건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외식하면서 금식기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똥개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돈 좋아하면 온 세상이 돈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게 눈이 성하지 못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선택받아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재물입니다.

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격상시키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정도로 재물이라는 걸 급부상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죄악 된 습성을 다 고려하신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라이벌로 결승전에 임하게 될 라이벌로 재물을 꼽으셨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라구요.

이 정도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도대체 돈을 붙잡고 있는 있어서 붙잡고 있든지 없어서 붙잡든지, 없어도 돈이 최고다 라면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실제 삶에서 돈 만지고 벌고 쓰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이외 분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 지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외제차 한 대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외제차를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차가 없어도 되고 국산차라도 되고 외제차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차를 사는 일에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돈 있다고 외제차 마음대로 사라는 게 아니에요.

명품 백 하나를 사고 싶은데 돈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이외에 백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에 한계를 그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긋지를 못해요. 돈이 있으면 백을 삽니다. 아니 빚을 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불가능해요. 뭣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것은 재물을 미리 보내놓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내 삶에서 내게 미리 보내신 재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재물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보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내거 아니에요.

내거 아닌 재물이 오는데 그래도 내거 아닌 것 중에 하나님이 용도를 정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공생애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셔서 이 몸으로 이루셔야 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좀 무서운 구절이지요? 내 돈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난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외제차도 사고 싶고 명품 백도 사고 싶고 외식을 해도 십만 원짜리 이상의 외식을 하고 싶고 이래저래 돈 좀 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만 모든 재물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말고는 다 아버지의 손으로 지불되게 되어 있고 사용되게 되어 있고 쓰임 받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잠간 은행이에요. 은행… 아버지가 돈을 좀 맡겨놨다가 돈을 찾아 쓰는 은행 통장이에요. 하나님의 통장이 바로 내 지갑입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통장이 내 지갑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라 이거에요. 그 중에서 통장에 넣어둔 사이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분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이자 내가 찾아서 일용할 양식 먹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쓰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대로 기도했다가 내 인생의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로 많이 들잖아요. 오병이어 때에 그 정말 일용할 양식뿐입니다. 일용할 양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한 다윗에게 들려진 조약돌 하나가 사울 왕이 거느리는 전 이스라엘 군대가 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진멸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천억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과 백만 원을 갖고 있는데 백만 원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놓는 것과 나중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마치신 뒤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한 겁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밀고 나가시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모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마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루터의 말대로 인간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정을 지어야 됐을까? 그 다음 구절과 맞물리는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한계를 짓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기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요 기도가 된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게 주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들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제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물질의 용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제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용할 양식 이외에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필요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다 사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라 이거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물론 외제차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외제차가 별 겁니까? 사람이 만든 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굴러다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면 명품 백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 뜻으로 명품 백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외제차가 들어오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앞에 부분에서 충분히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들 충분히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진정으로 외제차 안타도 되고 명품 백 안 들고 동창회 가도 떳떳할 수 있는 그리고 옷은 허름해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의 빛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필요하다면 외제차를 주실 수 있고 명품 백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품 백이 아니면 안 되고 외제차를 타지 못해 안달이 난 심령이라면 그 심령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유학 보낼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자식을 바라볼 때도 공부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사람 노릇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유학을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엘리트로 만들어야지 한국에서 공부 못하니까 외국가면 혹시 잘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학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횡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금횡령. 요게 바로 공금횡령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 용도를 내가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게 공금횡령입니다.

이 세상의 공금횡령은 세상에서 벌을 받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금횡령을 하면 영원한 멸망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공금횡령이 공금횡령의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재물 때문에 기뻐지는 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주님을 제대로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식사 준비를 바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는 마리아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재물을 섬기는 거고 돈이 없으면 죽겠다고 우는 게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울어야지 왜 돈이 없다고 웁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배불러야지 왜 돈이 있어야 배부르다고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배웠을까요? 아담이후부터. 돈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이상한 신념체계가 가치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송두리째 먹어버렸습니다. 이 숫자적인 부흥 이런 것들이… 왜 교인이 많이 와야 목사님들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기쁘지. 교인이 많이 있어야 기뻐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쁜 거지요. 우리가 이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 너희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냐?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좋지요. 부모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지요. 대통령 뜻이 좋아요? 하나님 뜻이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좋지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너의 재물 사랑이니 어쩌면 좋냐… 일용할 양식 말고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놓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무나…

그 기도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실지 생활에서 장사하는 중에 사업하는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실지로 나가서 사업하다가 돈을 만지다 보면 이건 뭐 천원 깎느라고 난리고 천원 안 깎이려고 난리고…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용할 양식 이외의 재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생활하는 모든 실질적인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 이겁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케인즈의 경제 원리, 아담 스미스의 경제 원리를 알아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한마디가 인류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원리입니다. 모든 노벨 경제학상은 다 거둬서 회수해가지고, 왜 회수합니까? 그 받은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노벨상 준만큼 다 그들의 이론이 맞아 떨어졌다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었겠어요? 된 게 없잖아요. 다 회수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한마디를 넣으신 주님께 다 드려져야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개개인들이 허락받은 모든 물질을 다 일용할 양식 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놓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물질의 분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물질 사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 놔두고라도 내 삶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나의 삶을 세워나가시고 그 삶의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 가시는 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신 물질의 용도를 한정하겠사오니 나머지 모든 물질은 아버지의 통치 아래 내놓고 기다리오니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여러분 안 망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서 가장 멋진 삶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 한마디를 붙잡고 그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 입장을 공공이 취하므로 내 삶의 전체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